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자료**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2년 2월 22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오승철 동남아협력과장, 조인용 사무관(2110-4626)		

제26차 한·호주 자원협력위원회 개최

- 광물자원 투자 진출 및 LNG 도입 확대노력 합의
- 신규 해상광구, 그린에너지분야 등 공동 발굴·추진키로

□ 지식경제부(수석대표 : 문재도 산업자원협력실장)와 호주 자원에너지관광부(수석대표 : Tania Constablel 자원실장)는 '12년 2월 22일(수)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"제26차 한-호주 자원협력위원회"를 개최함

○ 양국은 유연탄, 우라늄 등 호주내 광물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 확대와 LNG 국내도입 확대, 신규 해상광구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,

○ 청정에너지 및 그린에너지 분야의 공동연구 사업, 그린에너지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 교환·교류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음

○ 또한, '저탄소 녹색성장'을 위한 양국의 배출권거래제('15년 도입예정), 투자방향 등의 정보교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협력방안을 강구하기로 함

□ 한-호주 자원위는 에너지·자원 분야의 양국 협력강화와 교역·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간 공식 협력채널로 1980년 이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음

○ 이번 26차 회의에 한국측은 문재도 지식경제부 산업자원협력실장을 수석대표로 광물공사, 석유공사, 가스공사, 에관공, 에기평, 지자연, 대우조선해양 등 17개 기관 30명의 대표단이 참가

○ 호주측은 타니아 콘스태블(Tania Constable) 자원에너지관광부 자원실장을 수석대표로 쉐브론, BHP, 리오틴토, 우드사이드 등 19개 기관 33명이 참가하여,

○ 양국의 에너지·자원 수급 동향과 전망, 에너지 정책, 투자제도 등을 소개하고, 광물자원·석유가스·우라늄·에너지효율·탄소배출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등의 세부 의제에 대해 양국의 현안과 관심사항을 협의

□ 양국은 그 동안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온 양국 간 자원개발 교역·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호주 자원개발 진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

○ 특히, 우리 기업이 호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이롱 유연탄, 가스공사가 장기 LNG 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지분을 투자한 Gladstone LNG와 Shell Prelude 프로젝트 등의 사업 추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됨

* 바이롱 유연탄광(NSW주 시드니분지) : 한국전력 참여중, 탐사권연장 승인 심사 중
* GLNG프로젝트(퀸지랜드 내륙) : 가스공사 지분 15%, '15년 2/4분기 생산 예정
* Prelude FLNG프로젝트(서호주) : 가스공사 지분 10%, '16년말 상업생산 개시예정

○ 한편, 호주측이 신규 해상광구, 우라늄 광산 프로젝트 개발·도입에 한국기업의 참여 확대를 희망함에 따라, 구체적 프로젝트 발굴·참여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

□ 호주는 우라늄·아연·니켈 매장량 세계 1위, 철광석·유연탄 4위의 세계적인 자원부국이자 세계 최대의 석탄, 철광석 수출국으로,

○ 풍부한 자원 매장량과 안정적 투자환경 등을 바탕으로 한국기업의 진출이 매우 활발하여 우리나라 해외 광물자원 투자 제1위 국가이자 제1위 광물수입국임

* 對호주 광물자원수입('10년): 118.9억불 (광물전체 수입액의 41.7%)
* 對호주 광물투자 누적액('11.6월)은 U$ 28.4억불로 우리나라의 해외광물개발 투자액(U$ 93.3억불)의 30.4% 차지

□ 한편, 호주 대표단은 23일 가스공사 인천생산기지를 방문할 예정이며 액화플랜트 공사현장, DME 플랜트 시설 견학을 통하여 양국 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임

<참고>

제26차 한-호 자원협력위 개최 개요

□ 개 요

○ 배경 및 목적

- 한·호 자원위(수석대표 : 양국 실장급)는 양국 정부간 에너지·광물자원 분야의 공식적인 협력 창구로서 1980년부터 정례적으로 개최

  * 한·호 자원협력 MOU 체결('99년), 한·호 자원협력협정 체결('04년)
  * 25차 회의는 '10.3.15 호주 개최(대표: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, John Hartwell 자원실장)

- 호주는 우리나라의 광물분야 최대 수입국이자 최대 투자국으로서, 동 회의를 통해 양국간 에너지·자원분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기업의 자원개발 투자진출 지원

○ 일자 및 장소: '12.2.22(수) 10:00~20:00, 서울 코엑스인터콘호텔 (ALLEGRO룸)

  * 2.23(목)에는 한국가스공사 인천LNG생산기지 site tour 예정(호주대표단)

○ 대표단 구성

- 한국 : 지식경제부(수석대표 : 문재도 산업자원협력실장), 한전, 광물공, 석유공, 가스공, 한수원, 에관공, 에기평 등 17개 기관 30명
- 호주 : 자원에너지관광부(수석대표: Tania Constable 자원실장), 쉐브론, BHP, 리오틴토, 우드사이드 등 19개 기관 33명

□ 주요 논의 의제

○ 에너지 정책 (에너지수급 전망, 양국 에너지정책 소개)

○ 석유, LNG, 우라늄, 광물자원 교역·투자·개발 협력

  * 유연탄 등 자원개발사업 현안점검, 신규프로젝트 협의 및 정보입수, LNG도입 등

○ 청정·신재생 에너지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논의

○ 에너지·광물분야 협력방안 토의